

사하구불교聯, 화합으로 일군 무료급식 20년

정성이 원칙, 갓 지은 음식으로 공양 마련

현대사회에서 지역구불교연합 활동이 미진해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20년 동안 사하구 지역을 담당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해온 곳이 있어 화제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해우) 소속 10여개 사찰은 사하구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화합하고 무조건 뜻을 함께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비 실천과 포교의 원동력을 화합에서 찾은 사하구불교연합회의 무료급식 현장을 11월 16일 찾았다.

급식을 준비하는 날 오전 9시에는 여김없이 국산 최고급 재료로 준비한 장거리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하다. 조리대에서 씻고 다듬어 배식 직전에 요리를 마쳐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준비를 한다. 대부분 사하구 판자촌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무료급식 소식을 접한 노숙자들과 멀리 타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3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는다.

회장 해우 스님은 "사하구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곳이 타 지역보다 낙후된 환경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며 "누구나 접근이 편하도록 사하구 중심지에 급식소를 차렸다"고 설명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의 무료급식 봉사는 1995년 6월 무허가 판자촌을 위한 무료급식 현장을 불자 봉사팀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에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열고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후 어르신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상위 계층 홀몸어르신 안식처 20년 이어온 저력, 지역 모범 사례 무료 급식의 복지 사각지대 살피

2014년 7월 10일 현재 위치한 사하구 괴정동 상이균경회 사하지회 회관 지하에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해우 스님은 "현재 전기세와 월세, 식비까지 연 8000만원가량 소요된다. 이 모든 비용을 사하구불교연합회에서 십시일반

보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하구불교연합회에 있는 스님들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해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불자들의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옮기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사하구불교연합회 무료급식에 동참하는 곳은 △성불사 해원 스님 외 10명 △대부암 선재 스님 외 12명 △약사사 법인 스님 외 12명 △길상사 자인 스님 외 11명 △문수암 묘덕 스님 외 12명 △이귀연 지장회 회원 13명 △약사사 해우 스님 외 13명 △해장암 승우 스님 외 13명 △무학사 보승 스님 외 10명 등이다.

해우 스님은 "무료급식 공간을 더욱 확대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공예, 미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급식소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무료급식 외에도 지역을 위해 을숙도 절재막이 지원 사업, 경로잔치, 무료 장수사진 촬영, 환우 위안 음악회, 다대포 해수욕장내 청소년 선도 및 4대악 근절 캠페인, 불자의 밤 한마당 및 장학금 전달, 김장 나누기, 행복마을 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하구불교연합회는 11월 20일 부산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우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색소폰 및 아코디언 연주 등 흥겨운 무대 공연이 이어졌으며, 스님들은 병실을 직접 방문해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문화원, 남산동에 문 열어

어린이 포교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부산 불교문화원(원장 김광호)이 11월 14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문화원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해온 김광호 원장이 새롭게 문을 연 법당이다.

개원법회는 어린이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해 개식사와 내빈들의 인사말, 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식 및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성 안국사 대안 스님, 천불정사 창민 스님, 윤영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이수경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김기동 동국대 원우회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호 원장은 "현재 한국불교의 어린이 포교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위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다음 생에도 어린이 포교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문화원 개원법회에서 음성공양으로 축하하고 있는 보리수초등불교학교 학생들.

부산불교문화원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5층으로 지어졌다. 법당은 60평이며 앞으로 4층은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불교문화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리수초등불교학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보리수불교대학이 진행되며 태영 장학회 및 (사)불문정소년회센터를 운영 중이다. (051)581-2303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스리랑카서 온 진신사리 대관음사에 봉안

대구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주지 수진)는 11월 10일 경내 일주문 앞에서 스리랑카 국제친선 교류 일환으로 마하메우니와 사원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기증받아 옥불보전에 이운·봉안했다. 봉안법회에는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관음사 주지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도 22명이 직접 이운해온 진신사리 1과는 양국의 친선교류와 우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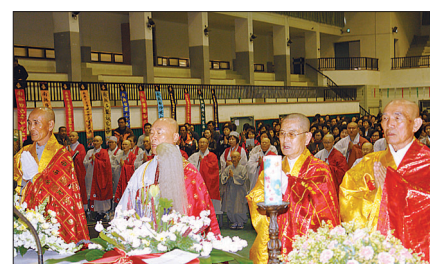
대관음사 주지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도 22명이 직접 이운해온 진신사리 1과는 양국의 친선교류와 우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 동참한 마하메우니와 안산선원 주지 같아니와 스님은 "오늘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우리 모두 다함께 행복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수진 스님도 "국가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은 대관음사 도량에서 온 세상의 정토구원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경북종무원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대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원장 광정)은 11월 15일 대구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무원장 광정 스님과 팔공총림동화사 총무국장 지원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처장 연암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치 삼독과 팔만사천 번뇌가 꼭 차 있더라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들어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불교 공부라 불리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법음법배의 식전행사에 이어 종사이운, 종무국장 영범 스님의 개회로 시작된 법회는 의례와 육법공양, 헌공·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총회회장 법도 스님은 고불문에서 "급일 수계를 받는 불자들이 자불성찰하고 수승함으로 계를 지키며 한 치에 물러남도 없이 정진해 중생을 구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하겠다"고 했다.

종무원장 광정 스님은 "보살계는 탐진

치 삼독과 팔만사천 번뇌가 꼭 차 있더라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들어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불교 공부라 불리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사는 전계대화상 수진 스님, 갈마대화상 광정 스님, 교수대화상 자산 스님, 증사대화상 송운 스님 등이 맡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통영 보현사, 쪽방촌에 온기 나눠요"

겨울이면 항상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쪽방촌, 이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다.

통영 보현사(주지 목원)는 11월 15~16일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연탄 3000장을 마련해 직접 쪽방촌에 연탄을 지원했다. 연탄은 장애인가정,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10가정에 각각 300장씩 전달됐다. 또 연탄 외에 백미 20kg을 각 가정에 함께 전달했다.

연탄배달 봉사에는 보현사 신도회와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 회원, 통영불교거사법회 회원, 통영 해양경비안전서 의경들로 구성된 한울봉사단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를 준비한 목원 스님은 "연탄조차 구하지 못해 차가운 방에서 한겨울 추위를 나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들을 위해 연탄을 나누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불자들과 의견을 모아 연탄나눔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참배路 통행금지 부당한 처사"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회주 천제)의 부락수호신각 통행로가 산주의 통행로 금지 조치로 인해 완전히 폐쇄됐다. 성철 스님의 만상좌인 천제 스님이 회주로 있는 부산 해월정사는 40여 년간 마을주민들의 부락수로 부락수호신각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의 부락수호신각 통행로가 산주의 통행로 금지조치로 인해 완전히 폐쇄됐다.

통행금지과 관련해 천제 스님은 "그 통행로는 50여 년 전 해월정사 불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니던 길이다. 땅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조차 금지시키며 청사포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내온 부락수호신각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고 사찰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월정사의 건물 일부가 산 주인의 부동산에 일부 침범한 것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월정사는 2011년 3월 18일 당시 공시지가 8200여만 원에 해당하던 부동산 1000여 평을 약 13.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제 스님은 "성철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한 불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100주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부동산 소유주는 성철 스님 친필 원고 전사관인 봉훈관이 자신의 땅을 1m가량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으면 준공은 불가하다며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당시 침범한 범위가 극히 작으니 그 부분만 사졌다고 했으나 1000평 이하는 팔지 않는다며

고가의 금액으로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해월정사는 당시 불사금을 지원하기로 한 어느 불자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2012년 11월 26일에는 계약 해제를 통보 받으며 계약금 가운데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한 천제 스님은 부동산 소유주가 설치해 둔 펜스를 치우고 청사포 주민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호신각에 갔다가 사유재산 기물 파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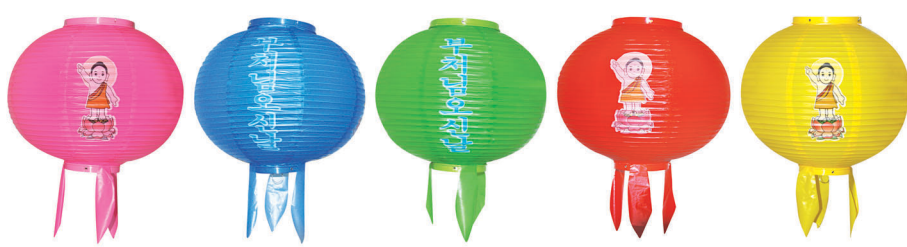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